

http://dx.doi.org/10.17703/JCCT.2023.9.6.827

JCCT 2023-11-98

##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경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Factors Affecting Social Capital Awareness of Social economy

이국권\*, 박선경\*\*

Kuk-Gwen Lee\*, Seon-Gyeong Park\*\*

**요약** 본 연구는 사회적자본이 사회적경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자본이 사회적경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규범( $t=3.228, p<.01$ ), 참여( $t=3.057, p<.01$ )가 사회적경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규범을 잘 준수할수록, 참여가 높을수록 사회적경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규범'이란 사회 내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나 기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범은 개인들의 행동을 조절하고,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강력한 규범 체계가 있으면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참여'는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사회적자본을 통해 참여도가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경제 인식에 대해 높은 이해력을 가지며,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는 규범을 잘 준수할수록, 신뢰와 네트워크가 강화될수록 사회적경제 인식이 높아졌다. 이와는 달리 본연구에서는 규범과 신뢰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네트워크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결과로 선행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규범과 참여라는 사회적자본의 요소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면 전반적인 사회경제 인식 및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사회적자본,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인식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verify and examine the factors that influence social capital on social economy awareness.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result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social economy awareness, norms ( $t=3.228, p<.01$ ) and participation ( $t=3.057, p<.01$ ) had a significant impact on social economy awareness. In other words, the better the norms are observed and the higher the participation, the more influence it has on social economy awareness. Based on these resul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rawn. First, 'norms' refer to rules or standards that community members must adhere to within society, and these norms play a role in regulating the behavior of individuals and promoting social cooperation. Through this, it is believed that a strong normative system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way people participate or cooperate in social economy activities. Second, 'participation' is an indicator of how actively an individual or group participates in social activities. People with high levels of participation through social capital will have a high level of understanding of social economy awareness and will be able to act effectively. These results show that in previous studies, the better the norms were observed and the more trust and networks were strengthened, the higher the awareness of social economy. In contrast, in this study, norms and trust were found to have an effect, but the network did not, showing a difference from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so repeated research is expected to be necessary in the future. Considering the results above, strengthening and developing the elements of social capital such as norms and participation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overall socioeconomic awareness and development.

**Key words** : Social Capital, Social Economy, Social Economy Awareness

\*정회원,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주저자)

\*\*정회원, 호남대학교 대학원 창업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10월 3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25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10일

Received: October 3, 2023 / Revised: October 25, 2023

Accepted: November 10, 2023

\*\*Corresponding Author: lkg7744@daum.net

Dept. of Philosophy in Business Administration, HoNam Univ, Korea

## I. 서론

현대사회가 지속적 발전하면서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화 되고 국가가 공적인 요구를 전부 소화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부 실패적인 경향은 새롭고 주체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1]. 최근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경제에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양극화 해소와 지역사회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등 사회 공동의 이익추구와 지역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하는 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2].

사회적자본에 대한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구성요인을 기존 학자들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되었다[3, 5]. 사회적자 본에 대해 “지속적인 네트워크 혹은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로서,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서 획득되는 실제적 혹은 잠재적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하였다[3]. 이는 지속적 관계를 통하여 서로 알고 있거나 친밀한 개인적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혜택이나 기회의 합계인 것이다.

실제로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회적자본의 범위는 개인 연결망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연결망에 포함된 사람들 모두가 소유한 자본까지 광범위한 범위에 포함한다. 자본이란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적자본으로 구분하였으며, 또한 자본의 개념을 경제적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시켰다[5].

사회적자본은 인적자원개발의 입장에서 인간의 자본과 함께 한 국가의 인적자원이나 자산을 구성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 개인과 지역사회가 공식적인 존재로 제도적인 틀을 넘어 협동, 정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치를 나타낸다[7]. 사회적자본이 개인들 간의 관계로 내재해 있으며, 구체적인 규범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 수준 높은 시민을 제고시켜 정책실현의 효율성,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8]. 또한 사회적경제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복지국가와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9]. 사회적경제는 '사회문제에 대해 해결하는 공동체적 방식'으로 공동체 속에서 실질적 문제를 해결해가는 주체가 시민이라는 점에서 시민역할과 주도성을 강조할 수 있다[10]. 이는 시민들에게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과 공동체와의 연결하는 통로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장소로서의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11, 12]. 이처럼 사회적경제가 시민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제해결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시민의 참여, 자본과 재화, 서비스의 이동에 대한 것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에 매우 적합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11, 13].

시민들은 사회적경제의 소비자의 역할과 동시에 구성원이므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사회적경제의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사회적경제의 수요, 지지를 창출해내는 근본적인 원천이기 때문이다[13]. 최근 들어,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이 기존의 조직 생태계 조성 중심에서 시민의 인식과 참여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14]. 사회적자본과 사회적경제 인식은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경제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자본이 사회적경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사회적자본이 사회적경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진행한 연구로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총 150부를 배포하여 응답이 부실하거나 누락된 문항이 많은 설문지 26부를 제외한 최종 124부를 통계처리 하였다.

### 2. 측정도구

사회적자본이 사회적경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적자본은 [6]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인용하여 신뢰 5문항, 네트워크 5문항, 규범 6문항, 참여 5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전체 Cronbach's  $\alpha$  값은 .917, 하위요인 신뢰 .874, 네트워크 .812, 규범 .828, 참여 .815였다.

사회적경제 인식은 [15]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인용하여 전반적인식 5문항, 현재인식 5문항, 역할 기대 4문항, 조직인지 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

하였다. 전체 Cronbach's  $\alpha$  값은 .911, 하위요인 전반적인식 .900, 현재인식 .790, 역할기대 .883, 조직인지 .899로 전반적으로 신뢰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3.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25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결과에 대한 유의수준은 .05로 측정하였으며, 빈도분석, 기술분석, 상관관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성별은 남자 54.8%(68명), 여자 45.2%(56명), 연령 30세 미만 33.1%(41명), 50세 이상 26.6%(33명), 40~49세 24.2%(30명), 30~39세 16.1%(20명), 학력은 대졸 46.8%(58명), 고졸 이하 33.1%(41명), 대학원 이상 20.2%(20명)순이었다. 직업은 사무직 37.9%(47명), 기타 25.7%(32명), 자영업 19.4%(24명), 전문직 9.7%(12명), 기술직 7.3%(9명)였으며, 주거형태는 자가 58.1%(72명), 전세 20.2%(25명), 기타 13.7%(17명), 월세 8.1%(10명)순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 31.5%(39명), 500만원 이상 25.8%(32명), 300~399만원 17.7%(22명), 200~299만원 13.7%(17명), 400~499만원 11.3%(14명)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n=124)

구분		N	백분율(%)
성별	남자	68	54.8
	여자	56	45.2
연령	30세 미만	41	33.1
	30~39세	20	16.1
	40~49세	30	24.2
	50세 이상	33	26.6
학력	고졸 이하	41	33.1
	대졸	58	46.8
	대학원 이상	25	20.2
직업	사무직	47	37.9
	전문직	12	9.7
	기술직	9	7.3

	자영업	24	19.4
	기타	32	25.7
주거형태	자가	72	58.1
	전세	25	20.2
	월세	10	8.1
	기타	17	13.7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39	31.5
	200~299만원	17	13.7
	300~399만원	22	17.7
	400~499만원	14	11.3
	500만원 이상	32	25.8

### 2. 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사회적자본 전체 및 하위요인 평균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점 만점에 평균 3.50점으로 중간 이상이었으며, 하위요인은 규범 3.97점, 신뢰 3.52점, 참여 3.10점, 네트워크 2.77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사회적자본 전체 및 하위요인 평균

Table 2. Social capital overall and sub-factor average (n=124)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자본	124	2.29	5.00	3.50	.52
신뢰	124	1.60	5.00	3.52	.60
네트워크	124	.83	4.17	2.77	.61
규범	124	3.00	5.00	3.97	.50
참여	124	1.00	5.00	3.10	.75

사회적경제 인식 전체 및 하위요인 평균을 살펴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점 만점에 평균 3.62점으로 중간 이상이었으며, 하위요인은 역할기대 3.92점, 조직인지 3.55점, 현재인식 3.51점, 전반적인식 3.50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사회적경제 인식 전체 및 하위요인 평균

Table 3. Social economy awareness overall and sub-factor average (n=124)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경제 인식	124	2.16	4.84	3.62	.51
전반적인식	124	1.00	5.00	3.50	.73
현재인식	124	1.40	5.00	3.51	.57
역할기대	124	1.80	5.00	3.92	.61
조직인지	124	1.00	5.00	3.55	.81

4. 사회적자본이 사회적경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자본이 사회적경제 인식에 미치는 요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적 상관관계의 모든 값들이 정적인 상관계수의 값을 가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사회적자본 사회적경제인식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ocial capital and social economy awareness (n=124)

구분	사회적경제 인식	신뢰	네트워크	규범	참여
사회적경제 인식	1	-	-	-	-
신뢰	.380**	1	-	-	-
네트워크	.285**	.777**	1	-	-
규범	.370**	.444**	.422**	1	-
참여	.416**	.540**	.630**	.371**	1

\*p<.05, \*\*p<.01, \*\*\*p<.001

외생변수를 통제한 후 사회적자본이 사회적경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과 같다. [모델1]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주거형태, 월평균 소득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사회적경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모델2]는 독립변수 신뢰, 네트워크, 규범, 참여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회귀 모형은 F통계값이 p<.001에서 6.046의 수치를 보이고, 회귀식에 대한 R<sup>2</sup>=.349로 34.9%의 독립 변수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VIF값은 1.096에서 1.136으로 10을 넘지 않았으며, Durbin-Watson은 1.703으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자본이 사회적경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규범(t=3.228, p<.01), 참여(t=3.057, p<.01)가 사회적경제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규범을 잘 준수할수록, 참여가 높을수록 사회적경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사회적자본이 사회적경제인식에 미치는 영향  
Table 5.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social economy awareness (n=124)

변인	모델 I				모델 II			
	B	se	β	t(p)	B	se	β	t(p)
(상수)	3.337	.394		8.476	1.242	.495		2.509
성별	-.006	.095	-.006	-.067	.006	.083	.005	.066

연령	.032	.038	.084	.847	.001	.033	.003	.035
학력	-.020	.084	-.029	-.242	.057	.074	.080	.774
직업	.011	.017	.066	.618	.005	.017	.031	.297
주거형태	-.010	.046	-.020	-.206	-.072	.041	-.151	-1.740
월평균 소득	.094	.039	.291	2.377*	.057	.035	.177	1.616
신뢰	-	-	-	-	.216	.115	.253	1.881
네트워크	-	-	-	-	-.203	.116	-.241	-1.753
규범	-	-	-	-	.311	.096	.308	3.228**
참여	-	-	-	-	.215	.070	.314	3.057**
F	1.185				6.046**			
R <sup>2</sup>	0.85				.349			
adj R <sup>2</sup>	.038				.291			
Durbin-Watson	-				1.703			

\*p<.05, \*\*p<.01

V. 결론

본 연구는 사회적자본이 사회적경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은 남자 54.8%(68명), 여자 45.2%(56명), 연령 30세 미만 33.1%(41명), 50세 이상 26.6%(33명), 40~49세 24.2%(30명), 30~39세 16.1%(20명), 학력은 대졸 46.8%(58명), 고졸 이하 33.1%(41명), 대학원 이상 20.2%(20명)순이었다. 직업은 사무직 37.9%(47명), 기타 25.7%(32명), 자영업 19.4%(24명), 전문직 9.7%(12명), 기술직 7.3%(9명)였으며, 주거형태는 자가 58.1%(72명), 전세 20.2%(25명), 기타 13.7%(17명), 월세 8.1%(10명)순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 31.5%(39명), 500만원 이상 25.8%(32명), 300~399만원 17.7%(22명), 200~299만원 13.7%(17명), 400~499만원 11.3%(14명)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자본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평균 3.50점으로 중간 이상이었으며, 하위요인은 규범 3.97점, 신뢰 3.52점, 참여 3.10점, 네트워크 2.77점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 인식의 전체 평균은 3.62점으로 중간 이상이었으며, 하위요인은 역할기대 3.92점, 조직인지 3.55점, 현재인식 3.51점, 전반적인식 3.50점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자본이 사회적경제 인식에 미치는 요인들간의

상관관계는 모든 값들이 정적인 상관계수의 값을 가졌으며, 사회적자본이 사회적경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규범( $t=3.228, p<.01$ ), 참여( $t=3.057, p<.01$ )가 사회적경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규범을 잘 준수할수록, 참여가 높을수록 사회적경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규범'이란 사회 내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나 기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범은 개인들의 행동을 조절하고,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강력한 규범 체계가 있으면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참여'는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사회적자본을 통해 참여도가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경제인식에 대해 높은 이해력을 가지며,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규범과 참여라는 사회적자본의 요소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면 전반적인 사회적경제 인식 및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인 [15]의 연구에서 규네트워크가 강화 될수록 사회적 경제 인식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는 반대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결과로 선행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1] J. H. Chae. "A Study on the Role of Social Economy for Activation of Local Community : Focused on the Case of Italian Social Cooperatives",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14(3), 195-225. 2012.
- [2] S. H. Kang & S. H. Lee, "A Study on the Community Residents' Perception of Social Economy and Attitudes of Value Consumption", Social Economy & Policy Studies, 9(4), 61-84, 2019. doi.org/10.22340/seps.2019.11.9.4.61
- [3] Bourdieu, "The forms of capital. Cultural theory", An anthology, 1986.
- [4] J. S. Coleman,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1988.
- [5] R. D. Putnam, "Leonardi, R., and Nanetti, R. Y. Making democracy work: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6] M. H. Yu,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n Cooperative Governance in the Social Economy-Focused on the case of Gwangju Metropolitan City's", Social Economy Organization-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7.
- [7] T. J. Kim & A. N. Kim & N. H. Kim & B. J. Lee & J. Han. A study on measuring citizenship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apital formation.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3.
- [8] J.Y . Lee, "Local community and social capital", Korean Sociolocal Association, 23-49, 2006.
- [9] J. J. Na, "A Study on Fostering and Supporting of Social Venture for Social Economic Activation: Focusing on the case Seongdong-gu Seoul",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Hanyang University, 2019.
- [10]S. M. Cho, "Opening the era of social values, historical consideration of citizenship and social economy", Korea Social Welfare Council, 197-234, 2020.
- [11]OECD, "Social economy and the COVID-19 crisis: current and future roles", 2020.
- [12]J. G. Kim, "Social economy as freedom", Seoul: Book Sapiens, 2020.
- [13]S. I. Han and J. H Lee, "Social Economy and Community Development", Regional development research. 27(2), 1-31, 2017.
- [14]Y. S. Park, An Exploratory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Social Economy Participation : Focusing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Capital, Sense of Community, and Perception of Social Economy Department of Social Economoy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2023.
- [15]S. M. Cho, A study on the social economy awareness of Seoul citizens: Does awareness of the social economy affect community spirit and citizen empowerment?, Seoul Social Economy Support Center, 2020.
- [15]J. S. Jung, "Does Social Capital Influence on the Perception of the Social Economy? :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 of Philanthropic Behavior". Department of Social Economy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2021.